

서울시의회, 4차 산업기술 시정 적용 보완 촉구

“메타버스 내 디지털범죄 등 산업구조 재편 대응책 마련해야”

통신 장애 등 사고 방지 강조 자율주행으로 인한 실업 지적 “해킹 등 인위적 사고 대책 필요”

서울시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통해 4차산업 기술을 시정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디지털범죄와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사업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메타버스 서울 추진에 39억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에 170억원(국비 68억원, 시비 1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서울’(가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시는 내년 1단계 사업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광화문광장 같은 서울의 관광 명소, 청소



상암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차량. /서울시

년들을 위한 일대일 아바타 상담실 등을 메타버스에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2~2026년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서 ▲메타버스 활용 산업 생태계 육성 ▲MZ세대 타깃, 메타버스 학습 지원 ▲시공간 제약 없는 온택트 문화 마케팅 ▲시민 중심의 맞춤형 열린 소통 ▲현실과 가상을 결합

한 XR(확장현실) 기반 도시 혁신 ▲현실보다 편리한 신개념 가상 행정 ▲메타버스 서울의 안정적 인프라 조성 7개 분야에서 20개 과제를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의회는 “가상공간과 익명성이라는 메타버스의 특징 때문에 디지털 범죄, 불건전 행위, 각종 차별, 아바타 스토

킹·몰카, 성희롱 같은 성범죄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메타버스 내 불법 행위와 가상현실에서 사용되는 화폐·적립액 거래 관련 사항, 가상세계 과몰입 등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해 대비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일어난 KT의 통신 장애 사고를 예시로 들며 메타버스 상에서 이뤄지는 행정업무가 네트워크 이상으로 마비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조성·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킹 테러에 대비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현재 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율주행차 시

범운행지구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교통부의 임시 운행허가를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 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시의회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택시 기사, 전통 자동차 제조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면서 “실업 문제 해소,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보조금이나 세금혜택은 자율주행차 구입이 가능한 부유층에 대한 지원이자 교통약자를 차별하는 일”이라면서 “또 IoT(사물인터넷) 기술로 차량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의미는 통합 서버를 해킹할 경우 대규모 교통재난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안전 5대 대책 시행

제한 속도 안내 등 안전주행 캠페인 보행자 밀집한 곳에 횡단보도 조성

서울시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의 이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5대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AI) 기반 CCTV와 속도 안내 전광판 설치 ▲노면 표시 강화 ▲로고젝터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조성 ▲자전거도로 안전주행 집중 캠페인 실시를 골자로 한다.

먼저 시는 관내 전체 11개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AI 기반 CCTV를 설치하고, 자전거 통행량과 속도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고 위험구간에 안전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일부 CCTV엔 측정된 속도를 안내하는 전광판도 함께



속도 제한 노면표시(독섬한강공원). /서울시

설치해 주행 중인 자전거의 현재 속도를 실시간으로 표출한다. 안전속도(시속 20km)를 넘으면 적색으로 속도가 표시돼 과속 주행을 알린다.

시는 자전거 사고 다발 구역에 속도 제한 노면표시를 강화했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0곳에 안전속도 시속

20km를 홍보하는 속도 제한 노면표시를 100m 간격으로 총 106개 표시해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급경사·급커브·교차로 지역에는 안전 문구와 그림을 빋으로 투영하는 로고젝터 44대를 설치한다. 시는 로고젝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전 수칙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시는 보행자가 밀집한 곳에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처럼 높여 만든 ‘고원식 횡단보도’를 조성해 자전거 이용자의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자원봉사자들과 ‘자전거도로 안전주행 집중 캠페인’을 벌여 자전거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내일 ‘서울 영테크 토크쇼’ 개최

유튜버 신사임당 출연... 재테크 교육

서울시는 오는 24일 오후 6시 시민청 활짝 라운지(중구 세종대로 110)에서 ‘서울 영테크 토크쇼’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영테크 사업은 청년들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갖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에게 서울시가 재테크 교육과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영테크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토크쇼 행사를 마련했다. 16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신사임당(주인규)이 출연해 ‘청년에게 필요한 재테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토크쇼는 유튜브 ‘서울청년생활’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시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앞으로도 시는 매월 1회 이상 시의성 있는 주제로 ‘서울 영테크 토크쇼’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 영테크 토크쇼’ 홍보 포스터. /서울시

코스타리카 대통령, 서울 명예시민 된다

롯데 시장, 알바라도 대통령에 시민증 수여 교류 활성화·경제협력 방안 등 논의

까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사진)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된다.

서울시는 22일 오세훈 시장이 까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까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은 2018년 당시 만 38세 나이로 코스타리카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까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

재임 중 탈탄소국가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날 명예시민증 수여식 이후 오 시장과 까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은 면담을 이어가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환경, 디지털분야 교류 활성화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가수 이영지 홍보대사 위촉

서울시는 22일 가수 이영지를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곡 ‘낮 밤’(feat. 박재범)을 발표한 가수 이영지는 지난 2019년 방영된 엠넷의 ‘고등래퍼 3’에서 우승하며 데뷔했다.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전 아래 방송, 건축,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위촉돼 서울시를 알리고 시정을 홍보하는 임무를 맡는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23일(화) 음력 : 10월 19일

수도권 날씨 -3 ~ 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07:20 | 해질 17:17

지역별 날씨: 연천 -6/3, 동두천 -5/3, 가평 -5/3, 파주 -7/3, 서울 -3/3, 양평 -3/4, 수원 -2/4, 용인 -2/4, 평택 -4/4, 인천 -1/4, 백령도 1/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美·대만 고위 경제회담 개최에 中 “바이든 약속 어겨” 맹비난
▲ 시진핑, 미 ‘중포위’ 맞서 아세안 구애...“농산물 178조원 수입” /사진 뉴스스

▲ 英 엘리자베스 여왕 ‘건강 악화설’에도 증손자 세례식 참석
▲ 호주, 내달 1일부터 백신 접종완료 한국인에 입국 허용



▲ 베트남 코로나 확산에 각 지방성 방역 조치 다시 강화
▲ 북한 “위대한 김정은시대 빛내야”... 3대혁명 선구자대회 폐막 /사진 뉴스스